광복 70주년 기록으로 본 '금지곡들'

글. **왕성상** (엠디 데일리 편집국장 / 전 아시아경제신문 본부장)



금지곡은 '권위주의시대 상징하는 문화적 현상'
1933년 '레코드취체규칙'으로 '아리랑', '봉선화' 첫 금지
'아침이슬', '사노라면' 등 끈끈한 생명력 이어가며 애창

노래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소리의 역사책이다. 사회 아픔과 기쁨을 노래한 대중가요가 더욱 그렇다. 그러나 금지곡(禁止曲)에 묶여 대중 속으로 다가서지 못한 노래들도 많다. 금지곡은 권위주의시대를 상징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이야기된다. 넓게는 음반출반, 방송, 공연 등 공적 발표가 금지된 노래를 말하고 좁게는 음반제작 · 판매 금지곡을 뜻한다. 공연윤리(공윤)심의를 거쳐 유통 중인 음반이 사후제재로 방송을 못하거나 팔 수 없는 것도 있고 대대적인 재심사로 한꺼번에 금지곡으로 묶인 예도 있다. 게다가 방송심의에서 떨어진 곡은 물론 음성적 압력으로 전파를 타지 못한 사실상의 금지곡들도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 저항이 적잖았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록을 통해본 금지곡의 발자취와 현주소를 짚어본다.

IN

'금지곡'이란 용어는 노래가 대중매체나 공연시장을 통해 대중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근대 이후에 본격 생겨났다. 음반에 대한 법적규제는 1933년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 발표로 시작된다. 1945년 해방(광복) 뒤엔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다 1965년 '음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법제화됐다.

1980년대엔 비디오물을, 1990년대엔 게임물까지 넣어 1999년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1996년까지 음반심의는 제작 · 발매 전에 받아야했다. 국가를 대신한 공공기관에 의해 노래발표를 막을 수 있는 검열성격의 심의였다. '검열'이란 이름 아래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금지곡으로 분류되면 마음껏 부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정부가 금지곡으로 선정하면 그 노래는 운동권노래로 불리기도 했다. '아침이슬', '사노라면' 등이 민중가요와 구전가요로 거듭 태어나 끈끈한 생명력을 이어가며 애창되고 있다.

시대별로 달라진 노래심의기관

노래심의기관은 시대별로 달라졌다. 1966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출범한 뒤 1976년 한국공연윤리위원회, 1997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1999년부터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 그 모습을 바꿨다.

1996년 전까지 음반심의로 노래가 통제되는 건 2가지로 나뉜다. 제작 때 사전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음반발표가 되지 않은 노래와 음반발표 뒤 문제가 돼 재심으로 금지처분 받은 곡이 그것이다. 전자는 대중매체에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중가요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지곡이란 사후심의에서 금지처분이 내려진 후자를 주로 일컫는다.

방송금지곡은 다시 모든 방송차원의 금지곡과 방송사별 개별심의에 따른 금지곡으로 나뉜다. 1960년대 이후 방송금지곡 지정은 음반심의에 버금갈 만큼 힘이 셌다. 일부 가요의 '방송 부적격' 판정이 그렇다. 최근 힙합듀오 배치기(Baechigi, 1999년 결성)의 신곡 '마파람'이 흑인비하 등의 이유로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각 방송사는 심의기구를 두고 대중음악과 뮤직비디오를 심의하고 있다. 1996년 음반사전심의제가 없어지면서 금지음반은 사라졌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각 방송사 심의로 방송금지곡은 여전히 남아있다.

방송금지곡은 1965년 3월 1일 방윤 금지 제1호 조명암 작사의 '기로의 황혼'(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이 작사자 월북이란 사유를 시작으로 줄을 이었다. 1976년 9월 30일까지 771곡, 1981년 9월 30일까지 787곡, 1983년 11월 30일까지 834곡으로 늘었다. 방송금지 해금 뒤인 1987년 9월 30일까지도 332곡, 1994년 6월까지 301곡이 묶였다.

기로의 황혼

그러냐 그러냐 뜬세상
인심이란 모두가 그러냐
흩어진 인정이요 흩어진 사랑이언만
부평 같은 내 신세 흘러가는 내 팔자엔
인정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랑도 없다

그러냐 그러냐 낯설은
타관이란 모두가 그러냐
들어찬 사랑이요 들어찬 술집이언만
봄을 등진 내 한몸 버림받은 내 앞에는
사랑도 없고 길도 없고 술집도 없다

그러냐 그러냐 실없는
애정이란 모두가 그러냐
새뻐린 웃음이이요 새뻐린 눈물이언만
얼이 빠진 내 마음 넋이 빠진 내 얼골엔
웃음도 없고 피도 없고 눈물도 없다

아침이슬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의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 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금지곡기준은 공안측면과 풍속측면으로 나뉜다. 정치권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표현과 퇴폐, 음란 등 미풍양속을 그르칠 수 있는 표현을 금지기준으로 삼는다. 1960년대 후엔 표절도 중요한 심의기준이었다. 방송심의 땐 마약복용 등 가수의 윤리 · 도덕성도 따진다. 노래발표나 금지가 가져온 사회적 여파를 감안하므로 기준은 시대와 사안에 따라 달라졌다. 문화적 압박이자 박해인 금지곡 지정사유가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이었다.

음악인 중 금지곡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신중현, 김민기, 이미자, 이장희 씨 등이 꼽힌다. '한국 록의 대부'로 불리는 신중현 씨 노래는 통째로 금지됐다. 대표곡 '미인', '님은 먼 곳에', '빗속의 여인', '커피 한 잔' 등이 모두 묶였다. "박정희 찬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며 내용에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강산'까지 금지곡이 됐다.

김민기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가 작사 · 작곡하고 양희은이 부른 '늙은 군인의 노래'는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아침이슬'은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등의 단어들이 불온한 사상으로 보인다며 금지곡이 됐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왜색이 짙다며, '섬마을 선생님'은 몇 구절이 일본노래와 비슷하다며 금지됐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박춘석 선생이 작곡한 '섬마을 선생님'은 일본노래보다 앞서 만들어졌다. '기러기 아빠'는 너무 비관적이며 베트남 파병용사의 죽음을 암시했다고 금지곡 재갈을 물렸다. 노래중간에 나오는 "아빠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란 대목이 문제가 됐다.

이장희 작사 · 작곡, 조영남 노래의 '불 꺼진 창'은 왜 창에 불이 켜져 있어야지 꺼졌느냐, 절망이나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봤다.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마음을 그린 이장희 노래 '그건 너'는 남(박정희 군사정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이유로, '한잔의 추억'은 퇴폐적이라며, 양희은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방의경 작사, 김광희 작곡)은 사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다.

배호 노래 '영시의 이별'은 당시의 통행금지제도에 어긋난다며 금지곡이 됐다. 길옥윤 작곡, 쟈니리 노래의 '내일은 해가 뜬다'(전인권이 부른 '사노라면' 원곡)는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때도 올 테지~"란 대목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나타냈고 권력자들 기분을 언짢게 했다며 금지됐다. 심수봉의 '무궁화'는 국민들을 선동할 여지가 있다고 해 방송 하루 만에 금지조치 당했다. 록가수 김정미의 '바람'은 신음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창법이 저속하다며, 심수봉의 '순자의 가을'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이름을 노래로 부를 수 없다며 금지됐다. 대중들 사랑을 받아온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학생운동가와 노동운동가들이 부르자 전 대통령 시절(제5공화국)엔 금지곡이 됐다.

이처럼 갖가지 이유로 금지곡의 희생양이 된 가수들은 음악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자 직업을 바꾸거나 외국으로 떠나기도 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국과 맞서기도 하고 재야가수로 돌아선 사람도 있었다. 지금과 달리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적어 공연과 음반판매금지는 가수들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음악인들은 금지곡으로 묶이지 않으려고 작업과정에서 안간힘을 썼다. 혜은이의 '제3한강교'는 발표 때 가사가 선정적 · 퇴폐적이란 이유로 개사명령을 받고 문제의 부분을 바꿔 불러야 했다. 김민기가 만든 노래는 작곡 · 작사가를 음반회사 직원 등의 이름을 빌려 위장하기도 했다.

일본경찰에 시비 걸린 '목포의 눈물'

금지곡의 시대별 발자취는 근대로 분류되는 1900년대부터 살펴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33년 5월 22일 조선총독부가 부령 제47호로 만든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에 따라 '아리랑', '봉선화'가 첫 금지곡이 됐다. 일제가 그 무렵 나온 음반 4장에 대해 치안방해란 명목으로 발매금지처분을 내렸다. 이어 '황성옛터' 등의 노래도 금지곡이 됐다.

공연장 안에 임검경찰이 있었던 그땐 노래를 마음대로 만들고 부를 수 없었다. 조선일보사가 OK레코드사와 함께 전국 6대 도시의 애향가가사를 모집, 1935년 만든 '목포의 눈물'(문일석 작사, 손목인 작곡, 이난영 노래)은 가사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이 걸렸다. 3000여 응모작 중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로 나가는 무명시인 문일석 씨 원고(제목 '목포의 노래')가 당선작으로 뽑혀 노랫말이 됐으나 가사가 일제통치자들 비위를 거슬렀다며 시비를 건 것이다. 2절의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구절이 말썽이 돼 작사 · 작곡가가 일본경찰에 불려가 문초를 당했다.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의 대상이 일본이라며 문제 삼았다. 작사 · 작곡가는 순수한 동기로 만든 노래며 가사에 다른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소용없었다. 할 수 없이 가사를 '삼백연(三栢淵) 원안풍(願安風)'으로 바꿨다. 삼백연의 바람이 목포항 앞 3개 섬으로 이뤄진 삼학도를 거쳐 유달산 노적봉 쪽으로 분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검열을 거쳤다. 훗날 '원안풍은'은 '원한 품은'으로 고쳐져 취입됐다. 일본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가사가 고쳐지긴 했지만 이 부문의 숨은 뜻은 우리민족 한을 얘기하고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때부터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쓰러질 때까지의 300년 한을 나타낸 것이다.

금지곡기준은 공안측면과 풍속측면으로 나뉜다. 정치권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표현과 퇴폐, 음란 등 미풍양속을 그르칠 수 있는 표현을 금지기준으로 삼는다. 1960년대 후엔 표절도 중요한 심의기준이었다. 방송심의 땐 마약복용 등 가수의 윤리 · 도덕성도 따진다. 노래발표나 금지가 가져온 사회적 여파를 감안하므로 기준은 시대와 사안에 따라 달라졌다.



채동선 작곡 '조선의 노래', 사진가 겸 음악인 구왕삼의 '조선의 꽃' 등도 조선총독부가 금지곡으로 지정해 부를 수 없었다. 일제는 일본어 상용정책을 노래에까지 강요해 1943년부터는 조선말로 된 음반을 만들어 팔지 못하게 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금지곡은 음반을 내지 못하게 된 노래와 레코드에 실려 팔리고 있으나 방송을 타지 못하는 노래로 나뉜다. 자유당 말기엔 '물레방아 도는 내력'이 현실 도피적이며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을 노래했다며 금지됐다.

1950년대엔 6 · 25전쟁, 휴전협정 등 남북분단에 따른 냉전시대로 북한관련 음악인이 만든 곡이나 내용이 담긴 노래들이 금지곡으로 묶였다. 추미림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가 부른 '꼬집힌 풋사랑'이 그 사례다.

1960년대에도 음악활동은 자유롭지 못했다. 당국이 문화단체를 해산시키고 검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월북창작자 작품들이 많이 당했다. 한 · 일 수교에 대한 지식인들 반대여론이 높았던 1965년엔 트로트곡의 왜색성이 크게 문제됐다. 노래표절도 중요한 심의기준이었다. 방송심의에선 마약복용 등 가수의 도덕성도 문제를 삼았다. 노래심의는 1966년 1월 세워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약칭 예륜)가 맡았다. 1968년 서영춘의 '가갈골골 청춘'(서영춘 작사, 서영은 작곡) 등 108곡이 금지됐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1965년 한일협정 조인 이듬해 왜색이 짙다며 묶였다가 1987년 풀렸다. 이 노래는 베트남파병이 시작되자 군인들이 고향을 그리며 가장 듣고 싶어했다. 가요연구가들은 '동백아가씨' 음반을 우리나라 첫 밀리언셀러가요로 보고 있다. 국가가 경제개발에 힘쓰면서 건전가요보급에 나섰지만 국민들은 이 애달픈 노래에 열광했다. 이미자는 박정희 대통령시절 '동백아가씨'가 금지곡으로 묶여있을 때 청와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후쿠다 일본수상이 방한해 영빈관 만찬장에서 '동백아가씨'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다. 이미자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금지곡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요청하니깐 불렀다. 그분은 '동백아가씨'가 금지곡이란 사실을 몰랐다"며 "박 대통령은 '동백아가씨'와 '황성옛터'를 좋아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금희의 '키다리 미스터 김'이 금지곡이 된 사연도 재미있다. 노래심의담당자들이 키가 작은 박 대통령을 의식, 이금희를 1년간 방송출연을 못하게 한 후일담이 있다.

금지곡이 가장 많았던 때는 1970년대다. 1975년 공연윤리위원회 전신인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대중가요 재심의와 금지곡을 선정했다. 심의기준은 ▲국가안보와 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외래풍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패배, 자학, 비탄 ▲선정적, 퇴폐적인 것 등이었다. 그땐 유신정권시절 청년과 대학생의 자유주의적 문화를 억눌렀던 시기다.

금지곡이 가장 많았던 때는 1970년대

금지곡이 가장 많았던 때는 1970년대다. 1975년 공연윤리위원회 전신인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대중가요 재심의와 금지곡을 선정했다. 심의기준은 ▲국가안보와 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외래풍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패배, 자학, 비탄 ▲선정적, 퇴폐적인 것 등이었다. 그땐 유신정권시절 청년과 대학생의 자유주의적 문화를 억눌렀던 시기다. 가요인들을 대마초사범으로 잡아들이고 취입한 주요 노래들을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금지곡으로 묶었다. '아침이슬'(1970년), '거짓말이야'(1971년), '그건 너'(1973년), '미인'(1974년), '고래사냥'(1975년) 등 인기곡들이 많이 들어갔다.

1975년 6월 19일 공연활동 정화대책에 따른 제1차 금지곡은 '거짓말이야', '댄서의 순정', '잘 있거라 부산항', '항구의 0번지 사랑', '아메리칸 마도로스', '영시의 이별', '기러기 아빠', '고향설', '낙화유수', '서귀포 칠십리', '울며 헤어진 부산항', '오빠는 풍각쟁이', '진주라 천리길', '황포돛대' 등 142곡이다. 그해 7월 9일 제2차 금지곡은 '미인', '생일 없는 소년', '그건 너', '한잔의 추억', '불 꺼진 창' 등 60곡이다. 같은 해 9월 29일 제3차 금지곡은 '유달산아 말해다오', '등대불 사랑', '사람 나고 돈 났지' 등 67곡이다.

1979년엔 대마초 연루가수들 규제가 풀리면서 통기타음악도 여러 장르와 접목, 포크의 다양화가 펼쳐졌다. '따로 또같이'(강인원, 나동민, 이주원, 전인권)를 비롯해 1980년대 뉴에이지, 크로스오버 등 세계적 흐름에 맞춰 포크밴드 개념을 내건 '어떤 날'(이병우, 조동익), '시인과 촌장'(오종수, 하덕규, 함춘호) 등이 등장했다. 그해 마지막으로 풀린 가수는 조용필로 '창밖의 여자'가 히트하면서 1980년대 새 대중음악문화가 펼쳐졌다.

금지곡 중엔 정치이념과 관련된 것들도 적잖다. 1970년 방주연의 '꽃과 나비'는 북한을 떠올린다며 금지곡이 됐다. "그대는 나를 지켜주는 태양의 사나이~"란 대목에서 태양이 김일성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순수한 대중가요가사에 이념을 덧칠한 당국의 힘은 무소불위였다. 방주연은 히트곡이 묶여버리자 후속곡 '그대 변치 않는다면'을 하루 만에 작사 · 작곡했다. 이 노래에선 의도적으로 "나는 그대 위해 조용히 살리라"란 구절을 넣었다.

'아침이슬'은 처음엔 건전가요로 인정됐으나 운동권학생들이 자주 부르고 노랫말이 저항의식을 북돋을 수 있다며 금지곡이 됐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에서 '긴 밤'이 1970년대 유신정권을 뜻한다는 금지사유였다. '아침이슬'은 1970년에 발표됐고 유신은 1972년 10월 17일 선포됐다. 금지시키기 위해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노래는 젊은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문학적 음악결정체이자 민주화운동 대표곡이 됐다.

송창식의 '왜 불러'(1975년)는 자유를 향한 외침을 대변했으나 정부의 긴급조치 9호로 금지곡이 됐다. 제목이 반말 투이고 반항적 정서를 일으킨다는 이유였다. 영화 '바보들의 행진' 삽입곡인 이 노래는 경찰들의 장발단속에 쫓긴 젊은이들이 달아나는 장면에서 흘러나와 당국의 미움을 샀다. '고래사냥'은 불순한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며 금지곡으로 묶였다. 포경수술을 연상시키고 허무주의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고래사냥'은 같은 제목의 영화까지 만들어졌다. 이 노래는 군 출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영화주제곡으로 젊은이들 애창곡이자 데모대 운동가로 불리자 이를 두려워한 독재정권이 '퇴폐와 자학'이란 낙인을 찍어 금지곡으로 묶었다.

김추자도 취입곡 거의가 묶였다. 1969년 데뷔한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이야~"란 노랫말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해친다며 금

동백아가씨

헤일수 없이 수 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묻고
오늘도 기다리네 동백아가씨
가신 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 오려나

행복의 나라로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 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 도취했소
벽의 작은 창가로
흘러 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 봐요 귀도 또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없이
고개 들고서 오세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러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지곡이 된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부산출신 포크가수 한대수의 노래도 예외가 아니다. '물 좀 주소'는 물고문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행복의 나라로'(1974년)는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냐"며 금지곡으로 지정됐고 음반까지 압수당했다. 우리나라 포크음악개척자인 그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정치적으로도 한국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돼 1976년 미국이민을 가 1999년에야 돌아왔다.

정치적 이유로 금지곡 된 사례들 수두룩

1980년대엔 공식적이진 않았으나 정치적 이유로 금지곡이 된 게 수두룩하다. 전두환 대통령시절 민주화운동 때 불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 '늙은 군인의 노래' 등을 들 수 있다. 한 · 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방송 금지된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도 빼놓을 수 없다. 1987년 6 · 29선언 후 정부는 '동백아가씨', '아침이슬'을 포함한 상당수의 금지곡들을 풀었으나 대중가요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제도였던 방송사전심의제도는 남아있었다. 1987년 6월 시민항쟁 후 검열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투쟁이 있었다.

1990년대엔 금지곡들이 많이 풀렸다. 가수 정태춘을 비롯한 민중가요계 사람들 노력으로 1996년 음반사전심의가 없어졌다. 그해 6월 대중음악인들의 법 개정운동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에서 '받을 수 있다'로 바뀌었다. 검열제도가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일제강점기 잔재청산과 창작자유를 향한 교두보를 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음반에 대해선 구매가능자 나이에 따른 등급심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각 방송사 자체심의만 남아있다.

그런 가운데 1994년 8월 12일 방송위원회가 방송금지가요 1752곡 중 847곡을 해제했다. 표절혐의노래와 왜색가요 등 237곡을 뺀 1515곡을 재심의한 결과다. 방송위원회는 그해 6월 방송사 PD, 대중음악전문가들로 이뤄진 방송가요실무협의회를 통해 금지가요와 팝음악 등의 재검토작업을 벌여 금지사유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거나 정도가 가벼운 노래를 중심으로 풀었다. 월북작가노래 64곡, 외국가요 783곡이 대상이었다. 조명암이 노랫말을 쓴 '낙화유수', '무정천리' 등이 대표적이다. 비틀스의 '레볼루션', 밥 딜런의 '블로잉 인 더 윈드' 등 반전 및 불온내용을 담은 197곡과 애니멀스의 '더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등 불건전한 내용의 노래 177곡이 금지곡에서 해제됐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등 폭력범죄를 조장하거나 범법행위를 묘사한 노래 127곡, 제퍼슨 스타십의 '블랙 위도' 등 불건전한 성적표현을 담은 100곡도 해금됐다. 로버타 플랙의 '더 퍼스트타임 에버 아이 소 유어 페이스' 등 좌경작가 및 적성국가 노래 51곡, 환각제마약 사용을 묘사한 16곡, 반사회적 가사를 담은 115곡도 풀렸다.

월북작가노래는 1987년과 1988년 일부 해제된 뒤 방송에서도 풀리면서 모두 해금됐다. 북한작가동맹 중앙위원과 교육문화성 부상 등을 지낸 조명암 노래는 오랫동안 방송금지 됐으나 자유롭게 전파를 탈 수 있었다. '꿈꾸는 백마강', '알뜰한 당신', '바다의 교향시', '선창' 등의 가사를 조명암이 쓴 사실도 밝혀졌다. 지금은 그의 둘째딸(조혜령)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

북한에선 대중들이 마음껏 부르고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없다. 항일빨치산들이 즐겨 불렀다는 '자유평등가'가 최근 북한당국에 의해 금지곡으로 지정됐다. 이 노래는 몇 년 전부터 평양, 함흥 등 북한지역 대도시 중학생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애창되자 당국이 노래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봉건제도 부패를 폭로하고 양반계급에 대한 증오심을 촉구한 영화 '임꺽정' 주제가도 금지곡으로 묶였다.

우리 가요 '꽃 중의 꽃'도 북한에선 금지곡이다. 이 노래는 1998년 가을 동해항을 떠나 북한으로 간 금강산유람선 내 노래방 6곳과 금강산 현지 관광버스(200여대)에 노래가 나오지 못하게 했다. 금강산관광객들이 부를 수 없도록 묶은 71곡 중 하나로 노래방기기회사인 금영과 대흥전자가 반주를 지워버렸다.

규제가 많이 풀린 1990년대에도 금지곡은 있었다. 1995년 말 나온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은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란 대목에서 체제불신과 분노를 드러내 음반사전심의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서태지는 공륜의 노랫말 수정지시를 거절, 가사를 모두 지워버린 채 연주곡 형태로 음반에 담았다.

2000년대 들어선 사상적 이유로 노래가 금지된 사례는 거의 없다. 대신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일 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있다. 백지영의 '사랑 안 해'가 그런 곡이다. 백지영의 복귀 곡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 노래가 금지곡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저출산, 미혼여성을 조장한다며 금지곡으로 지정됐다. 인기밴드 자우림(JAURIM)의 대표곡 '일탈'은 시원한 가사와 리듬에도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쇼를~"이란 가사가 선정적이어서 금지곡이 됐다.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은 제목에 소주란 단어가 들어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친다며, 윤종신의 '팥빙수'는 팥빙수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중간쯤 나오는 "열라 좋아~"란 표현이 비속어에 해당돼 금지곡이 됐다. IN



필자 소개

마산 중 · 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대학원을 나와 1979년 〈한국경제신문〉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몸담아 오고 있다. 특히 '남인수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아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에 등록(865호), 〈이별 없는 마산항〉 등을 취입했다. '기자 가수'로 가끔 무대에 서면서 글을 쓰고 있다.